



함께하는 사람들

길을
끈다. 서

14일

오후 대치

4동 '방하 바른

생활 연구소'. 한 학부모와 실무자 간에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및 학습, 가정생활 등의 상담이 오간다. 이들의 표정은 격의없어 보였다. 장소도 특별히 구애받지 않는 듯, 복도 한 켠은 대화의 훌륭한 장이 된다. 이같은 장면은 방하 실천모임을 설명하는 하나의 작은 예에 속한다. 방하가 '기'를 수련하는 장소인 동시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수련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방하는 기를 수련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처음 방하를 찾는 사람의 80~90%는 병든 몸을 치료하기 위해 방하를 찾는다. 그러나 방하에서는 기수련을 통한 병치료에만 머물지 않는다. 올바른 생활자세와 정신수련 없이는 육체의 병도 고쳐지지 않는다는 신조 때문이다.

이곳 수련생의 절반 가량은 과거 민주화운동에 몸담았던 사람들이다. 회원중에는 진보적 소장학자인 강원대의 이병천 교수, 경남대 정성기 교수 등 교직층이 두텁다는 점이 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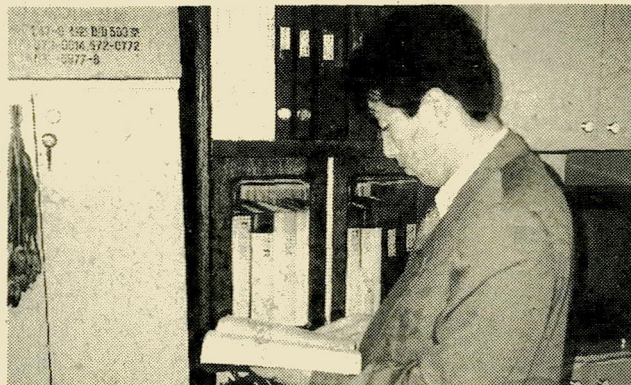
을 섭 교수도 출입한 바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제는 고인이 된 조영래 변호사도 투병중에 실천모임의 따뜻한 손길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때로는 세도가나 남을 등치며 사는 '기생' 캉패도 온다. 이곳 관계자에 따르면 전자는 스스로 껌데기뻘임을, 후자는 자신의 검은 과거를 느끼고 그래서 스스로 '거듭남'으로 움직여 나간다.

여기서 방하의 창시자 유상(36)을 만날 수 있다. 유상씨는 "육체와 마음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육체의 질병을 고치려면 마음의 병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마음 이야말로 만병의 근원이라는 것이다. 마음의 수행이 없으면 기수련도 곧바로 한계에 봉착한다고 한다. 따라서 진정 중요한 것은 기의 양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활자세를 올바로 닦는 것이라는 게 유상의 지론이다.

마음을 수양하려면 각종 자부심과 오만, 편견 등에 끌려

'방하 바른 생활 연구소' 유상



연구소에서.

"정신수련없이 '병'치료 안된다"

다니거나 진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있는 것을 드러내고 정비하고 바람직함을 건립해야 한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로지 참된 마음을 쫓아야 한다' 이를 압축한 말이 바로 방하(放下)다.

유상씨는 방하의 목표를 앞장서서 실천하려 한다. 그러나 그는 못사람 위에 군림하려 하지 않는다. 그가 아랫사람을 향해 90도 각도로 인사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예사다. 세상에 위사람과 아랫사람이 어디 있으며, 인사는 먼저 보는 사람이 먼저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단발신사로도 유명하다. 방하의 한달수입은 천만원이 넘지만 50여만원만을 생활비로 가져가는데 그중에서도 일부를 조개서 불우학생 등을 도와준다고 한다.

유상씨는 방하실천모임의

성격을 '대화·문화·삶의 공동체'라 말한다. 또한 수련은 궁극적으로 사회적 성격을 띤다. 말하자면 수련의 지향은 사회로 열려 있는 것이다. 모토가 '이웃을 건강하게 사회를 건강하게'인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그는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는다. 다만 경북대 법대생(79학번)으로 80년 초 절에 고시준비하러 들어갔다가 한 스님을 만나 본격적인 수행의 길로 들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80년 말경에 하산하여 대구에서 방하를 차렸다. 이후 방하실천모임(501~7769)은 급속히 확산돼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전국에 10여개나 되며, 특히 역곡수련원은 저소득층을 위해 특별운영되고 있다.

〈남상오 기자〉